

A Reading on The Ending of *Sons and Lovers* : 아들과 연인의 대미

Jeong-Gil, Park¹⁾

Abstract

With the L's plan of S/L, my own concern in this paper is the concluding paragraph of the novel; "*He walked towards the faintly humming, glowing town, quickly*". It reflects at least on the surface, an evidence to indicate that Paul is breaking away from the deathward drift and moving towards a new life, instead of contradicting author's original idea. He explicitly states that Paul "*is left in the end naked of evening, with the drift towards death*".

To these words some critics have complained that the ending is unsatisfactory because Lawrence was not quite honest with himself in his prospectus of the novel. In the ending of the novel optimistic, pessimistic, or neither? And how his critics have tried to make out the end of the words "*with the drift towards death*"? I have examined various criticism and tried to interpret on the conclusion of the novel with evidences in the text.

preface

「아들과 연인」은 처음에는 「폴 모렐」이라는 이름이었다. 자서전적인 수법으로 쓰여진 이 소설은 여러 번의 개고 끝에 1912년 말에 나오게 된다.

1) 한국해양대학교 영어과 교수

제 1부와 제 2부로 구성된 이 소설은 표면상으로는 그 짜임새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리 간단하지 않은 않다.

제 2부의 내용을 지배하는 폴의 성장이 제 1부에서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으로 볼 때에 소설의 제 1부와 제 2부의 관련성이 누구나 쉽게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치 못하며, 불필요하게 반복적이라는 이유로 허리가 잘린 소설('broken-backed')^①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는가 하면 등장인물의 상대였던 실제의 인물인 Jessie(=Miriam)에 대한 로렌스의 내레이션이 공정했느냐, 못했느냐하는 문제로 하여 주목을 끌어 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로렌스는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영감을 좇았을 뿐 최소한의 사실 조차도 외면하고 글을 썼다고 분통을 터뜨린 바 있는 Jessie의 요구를 아랑곳하지 않았다.

소설의 1부는 제 2부에서의 폴의 성공과 좌절에 대한 배경과 과정, 특히 어머니와 폴 그리고, 미리엄과 크레어러 간의 심리적 갈등을 표현하는 장이 되고 있다. 어머니의 관점에서 보면 소설은 남편과 첫 아들 윌리엄과 두 번째 아들 폴에 대한 관심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남편과 큰아들 윌리엄에 대한 Mrs. Morel이 보여주는 초기의 관심사에서 두 번째 아들 폴에게도 무게의 중심이 옮겨오는 국면으로 양분할 수 있다. 따라서 나중에 어머니가 유명을 달리하자 폴은 세상은 무의미, 그 자체라는 절망에 빠지게 되고 크레어러를 박스트에게 돌려보낸 폴은 기대했던 미리엄 조차도 그를 떠나버리자 마침내 폴은 그 자신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음을 알게 된다.

폴의 종말은 -The Release-14장과 -Derelict-15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가 모색되고 있다. 어머니의 죽음은 폴로 하여금 두 가지 점에서 생명이 할 수 없는 일을 성취하도록 이끌어 주었다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나는 폴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불유쾌한 현실이지만 어머니와의 사별이 그로 하여금 어머니로부터의 의존적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일이며 그의 슬픈 방향은 폴로 하여금 그에게 성숙의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I. Introduction

로렌스가 청년기에 내놓은 아들과 연인 Sons and Lovers가 세상에 나온 지가 86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도 여러 측면에서 여전히 활발한 논의가 펼쳐지고 있으며 이 소설이 담고있는 중심적인 issue가 과연 무엇이나 하는 논의에 대하여는 여전히 설왕설래가 많은 것을 본다. 그 중에서도 소설의 대단원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는 그 관점의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각각인 주장에 대한 여러 선험의 설명을 읽어보기라도 하면 그것이 전혀 황당하다거나, 그러한 논의가 설득력을 갖기에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어떤 모순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재조명은 여전히 논의의 가치가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음을 알게된다.

간단히 말하면 이 책은 제 1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 1부는 제 2부를 포함하며 이 책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는데 있어 중요한 대 전제가 된다. 그 까닭은 제 1부에서 잘 설명되고 있는 폴의 가정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서는 이 책에 대한 논의를 한발자국도 진행할 수 없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폴은 1부에서 마련된 제반 여건을 바탕으로 하여 자기시대에 자기를 찾아 나서는 행동자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자신의 길을 맹렬히 열어가는 사람이다.

그는 어머니와 자기자신의 관계에서 고뇌했다. 그런가하면 그는 어머니와 미리엄의 사이를 드나들며 자신의 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는 중간자로서의 방관자적 태도를 취했다. 어머니의 면전에서 어머니에게 기울어져 있었고 미리엄의 앞에서는 그녀의 편에 가까이 서 있으면서도, 그러나 미리엄이 너무나 정신적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중심을 크레이러에게로 옮겨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폴이 크레이러와 함께 육체의 길을 간 것도 아니었다. 결국 어머니를 떠나 보낸 폴이 두 여인 모두에게서 떨어져 가는 배덕의 길을 열어가면서 자신만을 위한 미래의 길을 찾으려고 한 것이다. 폴의 그 같은 행동은 어쩌면 무모하리만큼 대단한 용기랄 수 있다. 그것은 폴의 독립 선언이며, 자기와 친교해 온 사람들과의 고독한 이별의 길에 들어선다. 그

에게는 약속된 미래가 없다. 그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폴에 무작정 뛰어들어 가는 것이다. 폴을 일러서 vital hero이고 the first hero of L's fiction이라 한 것도②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어쨌거나 로렌스가 의도했던 최초의 구상에서도 폴에게 약속된 미래는 있지도 않았다. 이같은 폴의 행적으로 미루어 보건대 Sons and Lovers의 대미는 이 작품에서 처음부터 시도하고자 계획했던 결론 the conclusion of this work과 이 작품의 종말 the ending of this work에서 폴이 보여주고 있는 돌출된 행동간에는 논의를 불러일으킬 만한 표면상의 이유를 남기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여러 논의에 대하여 지난 70년대 이래 지금까지 유명학자들이 그들의 저서를 통해서 주장해 온 아이디어를 일람해 보고 필자의 생각을 한 마디쯤 덧붙이고자 함이 이 논저의 의도이다. 이를 위하여 Mortland의 선학들의 견해를 상당부분 참고로 삼았으나 그들이 자신들의 논거를 이끌어 내기 위해 부분적으로 말체하고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 그렇다면 그와 같은 종말의 처리를 의도한 작가의 의지는 과연 실수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II . Body--1.

로렌스는 1912년 11월14일 Edward Garnett③ 에게 보낸 편지에서 Sons and Lovers의 주인공인 폴이 소설의 대미에서는 마침내 죽음을 향하여 표류하는 'drift towards death' 운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It follows this idea: a woman of character and refinement goes into the lower class, and has no satisfaction in her own life. She has had a passion for her husband, so the children are born of passion, and have heap of vitality.....The son decides to leave his soul in his mother's hands, and, like his elder brother go for passion. He gets passion. Then the split begins to tell again. But, almost unconsciously, the mother

realises what is the matter, and begins to die. The son casts off his mistress, attends to his mother dying. He is left in the end naked of everything, with the drift towards death. It is a great tragedy, and I tell you I have written a great book. It's the tragedy of thousands of young men in England— it may even be Bunny's tragedy. I think it was Ruskin's and men like him. . . .

위와 같은 prospectus는 여러 평자들로 하여금 이 소설에 관한 열띤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④ <Ref. 1>. 그런데 일반 독자의 관점에서 보면 조심스럽게 의도된 로렌스의 위와 같은 축약문이 이 작품에 접근해 보려는 독자의 노력에 크게 도움을 주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독자의 이해에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우려되는 대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면 이에 대한 commentators의 설명 또한 구구하기 이를 때 없음을 쉽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설의 내용이 그리 간단치가 않음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혼란스러움과 당혹스럽기까지 한 면이 도처에서 발견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다가 소설이 대미에 접어들면 폴의 운명이 종언을 고할 비극적 시점에 와 있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런 독자의 태도라 할만큼 폴이 정신적으로도 매우 허약해져 가는 과정이 확연히 그려지고 있음을 본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폴의 생활이 위축되어 가면서 미리엄의 시련(Ch.11)에서 암시되고 또 의도된 것처럼 자신의 육체를 제물로 바치는 무리를 써서라도 폴을 차지하려 했던 굴절된 그녀의 과욕이 지금까지 공들여 온 그들 관계의 노력들을 안타깝게도 실패로 돌아가게 하고, 열정(Ch.12)에 와서는 폴이 크레어러에게서—미리엄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를 수 없었던—육체적 각성의 황홀감으로 인하여 잠시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육체적 정신적 충족감으로 인해 생명력이 넘치는 활력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런데 그 '경험의 의미와 질'이 두 사람 모두에게 같은 것이었다고는 말하기 어렵거니와 폴이 느끼는 감흥과 크레어러가 느끼는 감흥 사이에는 '충족의 희망만큼이나 환멸'의 모호한 감정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표면적으로는 어머니의 크레어러에 대한 평가—"그러나 애야, 너는 그녀가

싫어질 꺼다. 네가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너도 알지 않느냐”—에 따라 폴의 크레어러에 대한 태도가 수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머니의 이성적 충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폴이 경험을 통해 얻은 직접적인 감흥의 느낌이 그녀를 재량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 미리엄과 폴 그리고 크레어러와 폴, 이 두 집합을 두고 볼 때 양자 모두에게 어머니의 간섭이 뛰어들긴 했어도 전자와의 분위기가 음침하고 다소 긴장되며 폐쇄적이었던데 반하여 후자의 집합은 폴이 비록 가장 깊은 수준에서 어머니의 충고를 의식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긴장과 망설임을 초월하여 애인끼리 기쁨을 나누는 유쾌한 자발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소설의 어느 장보다 덜 억압적이라는 점에서 전자의 집합과 현격한 인간관계의 대조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폴과 크레어러의 이러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은 이들이 나누는 커다란 기쁨에 가려 표면적으로는 서로의 속내를 들어내지 않고 있으나 그러나 이들은 그들이 나누는 기쁨 뒤에 숨어 있는 불안한 자기 속내에 대해 떨쳐버릴 수 없는 의문에 쌓여 있음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러한 둘의 불안은 용케도 그들이 나누는 절정의 순간으로 인해 잠시 잊혀져 온 것일 뿐으로 이제는 절정의 순간들이 무너뜨린 불안과 걱정이란 것이 더 이상 순간적인 희열 정도로는 흔들리는 둘의 관계를 이어가기가 부적절한 순간에 이르렀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크레어러는 폴 못지 않게 그를 열렬히 사랑하는 장면을 연출한다. 그런 의미에서 Passion 열정(Ch.12)에서 보다는 Baxter Dawes(Ch.13)에서 크레어러의 폴에 대한 사랑은 매우 진전된 감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딱새가 울고 있는 장면에서 사랑을 나누던 때 크레어러의 폴에 대한 영혼의 인식과 폴에 대해 그녀가 현실적으로 체험하는 감흥간에는 무엇인가 부족함으로 인한 실의의 낚새가 포착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But Clara was not satisfied. Something great was there, she knew; something great enveloped her. But it did not keep her. In the morning it was not the same. They had known, but she could not keep the moment”
—“그러나 크레어러는 만족하지 못했다. 위대한 그 무엇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위대한 그 무엇이 그를 감쌌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를 잡아 놓지 못했다. 아침이 되면 그것은 똑 같지 않았다. 그들 둘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순간을 유지할 수 없었다.”—

경험을 나눔에 있어 그 감흥이 폴도 또한 크레어러와 별로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이들의 경험은 지금껏 침묵하고 있었던 억압된 영혼의 외침을 풀에게서 끌어내어 터뜨리고 마는 분열의 계기가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음의 말에서 보기 드문 해탈의 자유, 그리고 자발성의 여유를 풀에게서 발견한다.

“In the morning he had considerable peace, and was happy in himself. It seemed almost as if he had known the baptism of fire in passion, and it left him as rest. But it was not Clara. It was something that happened because of her, but it was not her.”—“아침에 상당한 마음의 평화를 맛보았다. 그리고 스스로 행복했다. 그는 마치 정열의 불꽃세례를 받은 것 같이 보였다. 그리고 이것이 그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든 것이 크레어러 자신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때문에 일어난 그 무엇이 지 그녀 자신은 아니었다.—

Gamini Salgado^⑤는 크레어러의 풀에 대한 불같은 집착이 그를 그녀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했으며 마침내는 풀이 그녀를 동정하는 의미에서 그녀와 함께 해 주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그 경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그리고 풀에게 집착하려는 그녀의 애절한 노력은 그들 자신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게 만드는 결과를 어쩔 수 없이 초래하게 만들었다. (미리엄도 지나친 소유욕때문에 그를 멀리 떨어져 나가게 만들지 않았던가?) 드디어 그는 동정하는 마음에서 그녀와 신간을 같이 보내게 되었다.—“And her pathetic efforts to cling to Paul have the inevitable effect of driving him further away from her (for had not Miriam too repelled him by her excessive possessiveness?) until he spends his time with her almost out of pity.”(49)



여기서 문제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폴에 대한 크레어러의 애절한 집착이다. 그러나 그녀의 행위는 점차 폴에게서 멀어져 가는 언동에 더 충실하다. 그것은 미리엄에 비하면 정반대 되는 즉, 육체의 길을 가는 덜 정신적인 크레어러가 가도록 되어 있는 준비된 길이다.

폴이 미리엄의 소유욕 때문에 그들 관계가 무너져간 것으로 유추해 보건대 이제부터의 그들 관계는 이전의 다감했던 관계로 복원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 박스트 도우즈가 폴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흠씬 패 주었을 때 애인인 폴이 박스트의 감당할 수 없는 힘에 도전한 것도 사실은 크레어러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빚어낸 마음에도 없는 저항이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거부되고 있지 않는가!

연인으로서의 평가도 폴 보다는 박스트가 우위에 있음을 크레어러는 드디어—"You can't come out of your self, you can't," she tells him, "Baxter could do that better than you."—당신은 자기껍질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요. 이런 점에서는 박스트가 당신보다 나왔어요—라며 공언하고 나서는 게 아닌가! 크레어러에 대한 폴의 온갖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리라는 징후는 절정의 순간에 그녀가 느끼는 폴에 대한 불안에서 이미 붕괴의 서막은 시작되고 있었다. 더욱이 그녀는 자기스스로를 도즈의 아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적어도 도즈가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상대방을 통하여 생명의 세례—the baptism of life—를 받았지만 동반자는 될 수 없는 사이였다. 그들은 서로 사명을 달리하는 관계였다.

이제 폴은 더 많은 실패에 따르는 좌절을 책임지거나 합리화하기 전에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체적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계의 실패는 결국 자기정리의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폴은 지금까지 자기 주도가 아닌 남의 의도에 따라 영향을 받아 왔다. 따라서 지금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한 어떤 가치를 찾아 나서야 할 단계에 왔다. 그들 관계의 감정의 골을 깊게 파 놓았던 사연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이제 자신의 고뇌를 떠 올려 보아야 할 시점에 온 것이다.

그에게는 지금까지 감추어 두었던 비밀이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와의 관

계에서는 곁돌고 있었던 문제였다. 성의 문제, —그것은 이들(폴과 크레어러)에게 있어서 신세계이며 만족이었다.— “It was for each of them an initiation and a satisfaction.”(430)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어머니와는 침묵으로 남겨진 문제였다. 그것으로 인하여 폴은 “굴욕과 자의식의 고민”을 맞보아야 했다.

그는 어머니의 구속-bondage-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길이라고 생각한다.

“His life wanted to free itself of her. It was like a circle where life turned back on itself, and got no farther. She bore him, loved him, kept him, and his love turned back into her, so that he could not be free to go forward with his own life, really love another woman. At this period, unknowingly, he resisted his mother’s influence. He did not tell her things; there was a distance between them.”(420)

폴은 이제 어머니의 구속-bondage-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폴은 분주히 도안을 그리는 한편, 어머니와의 거리를 두기 위하여,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약간의 책임을 벗어나 보려고 “그 여자는 나를 무섭게 사랑하지만, 그 강도는 깊지가 않아요” —She’s fearfully in love with me, but it’s not very deep.—(426) 라며 자기 변명을 하고 나서자 “그러나 그 여자도 너 만큼은 깊이 사랑하고 있을 것 아니냐” —But quite as deep as your feeling for her.—(426)며 어머니가 폴에게 응수해 올 때, 어머니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폴의 문제의식은 보다 형클어진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 폴이 갑자기 그리고 있던 그림을 “절망한 것 같이 도안을 그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He went on painting rather despairingly.—(427) 어머니가 고민하고 있던 폴의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려 준 것이다.

폴은 이 시점에서 더더욱 자기인식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폴의 이런 생각은 “어머니의 영향력에 저항”하는 강도 높은 빌미로 작용한다. 그는 미리엄도 크레어러도 다같이 자신을 잡아두지 못한다고 불평했다. 더 나아가 그는 “어째서 나는 크레어러나 또는 다른 누구와도 결혼

할 생각이 없는 건가?”—But why--why don't I want to marry her or anybody?—(426)라며 침울한 기분에 싸여 거의 탄식에 가까운 물음을 던지고 있다.

어머니가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지 못한 탓”—You wouldn't meet the wright woman.—(427) 이라며 아들의 말을 끊으려하자 그는 “아마도 어머니 살아 생전에 절대로 그런 여성을 만나지 못할 것” — And I never shall meet the right woman while you live,“(427) 입을 분명히 했던 것이다. 그리고 크레어러와의 관계도 이제는 추상의 유희 속에 아물거리는 sex의 허상일 뿐으로 풀은 이제 크레어러에게서도 발을 빼고 있다.

풀에게서는 순간의 경험을 영속시킬 수 없다는 것이 항상 아쉽다는 것이 크레어러의 생각이다. 게다가 그녀는 이쯤에서 “그를 위로해 주고 모든 것을 잊게 해 주고 싶다”—She wanted him to be soothed upon her—soothed. . . . She wanted to soothe him into forgetfulness.—(429)고 생각하는데 까지 이른다. 그녀는 풀과의 접촉에서 그가 자신에게서 무엇인가를 빼내 가려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속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녀도 풀과 자기 사이에는 어떤 위대한 존재가 있어 그것이 지금 자신을 감싸고 있다. —“Something great was there, she knew; something great enveloped her.”—(431)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었다. 만족할 줄 모르는 그녀의 지나친 소유욕 너머에는 이를 감당해낼 수 없는 풀의 비참함이 묻혀 있었던 것이다.

풀에게서 무엇인가 크고 생명력이 넘치는 중요한 부분—“some part, big and vital in him,”(439)—을 가지려고 시도하지 않았던 데도 문제는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풀의 속내에 내재하고 있는 거대한 생명력을 이해하려는 노력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풀이 자기한테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고 있다.—“she felt his desire to be free of her.”(436)—그리고 그녀 또한 박스터와는 정식으로 이혼하기를 바라지 않고 있음을 풀의 면전에서 분명히 하고 있다.—“But you don't really want a divorce from Baxter, do you?”.....“No”....., “I don't think I do.”(437)—그녀는 남편이 있는 몸으로 풀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이른다.

그런데 여기서 크레어러가 폴에게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다.

"Do you think it's worth it -the -the sex part?"

"The act of loving, itself?"

"Yes; is it worth anything to you?"

"But how can you separate it?" he said. "It's the culmination of everything. All our intimacy culminates then." (441)

-당신은 저 성욕의 가치를 인정하세요?

사랑의 행위 자체 말인가요?

그래요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세요?

허지만 그것을 별도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온갖 것의 절정이지요. 결국 우리의 친밀성도 거기서 절정에 도달하는 것이겠지요.-

라고 폴이 대답하자 "전 안 그러는 걸요" —Not for me, she said.(441)—하며 크레어러가 간단히 응수해 오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제 그들 두 사람이 지금까지 나누어 가졌던 생명의 세례-the baptism of life-(439)에 대한 가치의 인식이 얼마나 동떨어진 것인가를 쉽게 알 수 있다. 크레어러는 박스트를 소유했을 때처럼 폴을 완전히 소유하고자 했다. 폴 보다는 박스트 쪽이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으며 그에 비해 폴은 한번도 완전히 그를 자신에게 다 준 적이 없었다. —"...; but you've never given me yourself."—(442)고 꾸짖는 것이다. 그러니까.—"where he wanted to go she could not come with him."(439)—폴이 가고자 하는 길에 크레어러는 이미 동행자는 아니었다. 그녀는 폴이 온전한 "정신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본능" —He became, not a man with a mind, but a great instinct.—(442)이 되어 버렸을 때 비로소 그의 정열을 신뢰하고 있었을 따름이었다. 그리고 그것만을 맹렬히 추구하려는 욕구는 충족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공유하는데는 실패했다. 그러므로 두 사람 사이의 정열은 오히려 서로를 갈라놓는 요인이 되고, 그들의 사랑은 점차 기계적인 노력을 부추기는 쪽으로 만족을 찾아 나서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서로간의 매혹은 저만치 멀리 달아나 버리는 것이다. 이제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작은

금 때문에 추한 경멸감과 적대의식으로 어색해진 상황에까지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녀가 이미 폴을 떠날 준비를 마쳐둔 상태이고 폴 또한 결별이 예정된 상태-- "Will you always stay at Jordan's? "...No,"..."No; I s'll leave Nottingham and go abroad--soon."--(428)에서 Daybrook Station으로 향하는 폴 앞에 느닷없이 나타나 싸움판을 벌이는 박스트의 출현과 이 대결에서의 폴의 패배는 크레어러를 박스트에게 돌려주는 청산의 의식과 같은 정리 절차와 다름 아닌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리고 그가 크레어러에게 "I am gradually making my way. I know I am."(428)이라며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폴은 자신에 의해서 주도되는 세계를 열어가고자 한다. 폴이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 돌입하는 시기도 바로 이때이다.

Body--2.

모자간의 관계는 매우 슬픈 단절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다만 그 단절의 과정이 개인적인 결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가족 구성원과 헤어지는 통합된 이별의 의식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지배력은 정확히 소설가의 관점"--,... since the hold which the mother has on the son even when he is drawing away from her is precisely the novelist's point.⑥ 이므로 그 진실성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설은 그 세부적 묘사에서 아들이 어머니에게서 멀어져 가려고 작정하는 각오만큼이나 그 세부적 묘사에서 최대한으로 이별의 아픔을 자아내는 효과를 얻어내려 한다: 폴은 날로 쇠잔해 가는 어머니의 푸른 눈동자를 본다. 놀라운 "물망초의 푸르름,"-a wonderful forget-me-not blue-(453)그 커다란 어머니의 눈망울이 폴에게 연속적으로 떠오를 때마다 그는 기계적으로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로렌스는 이 울음을 "피가 울고 있는"- it was his blood weeping- 그런 슬픔이었다고 쓰고는 "-He cried, he didn't know why-"(458) 그 이유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자세

한 내레이션을 보태지 않고 있으나 울음의 이유에 대한 한 가닥 의미를 포착할 수 있는 말이 있다.

...Paul had gone out of the room. He sat in the kitchen, smoking. Then he tried to brush some grey ash off his coat. He looked again. It was one of his mother's grey hairs. It was so long! He held it up, and it drifted into the chimney. He let go. The long grey hair floated and was gone in the blackness of the chimney.(457)

즉, 여기서 우리는 그가 어머니와의 결별을 기정 사실화 하고 있는 표현의 상징성에 접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옷에 떨어진 머리카락, 어머니의 일부였던 그 실체의 흔적을 벽로의 킁킁한 연돌 속으로 떨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가족들은 어머니가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렐도 아내 앞에서 눈물을 닦아내고 있고 부인도 병 문안을 온 남편에게 몇 가지 주의를 보탠다. 전체적으로 보아 모렐 부인의 병세가 전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울한 기분에 빠진 전 가족의 슬픔이 동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까 Dr Ansell 과 Nott.의 Dr Jameson 에게 공동진찰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아들과 어머니에 대한 묘사를 두고 G. Salgado는 “현대 영국 소설에서 슬픔의 ‘객관적 상관물’ 을 나타내는 가장 감동적인 예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And surely this must be one of the most touching examples of the 'objective correlative' of grief in modern English fiction : ⑦ 라고 썼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소하지만 그러나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다. 지금까지 아버지 모렐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전적으로 따돌림을 받아왔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폴의 시각이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편향되어 있던 과거의 태도에서 벗어나 상당히 객관화된 자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지금에 와서는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아버지를 이해하려 하는 모습으로 조심스럽게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이다. 한때 절정에 달했던 미리엄과 크

레어러,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가는 사이에 소설은 우선 폴과 크레어러간의 불합리한 만남을 박스트가 그녀를 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에게 돌려보냄으로써 어색하게나마 그들의 관계를 봉합하는가 하면, 말이 없고 이제는 늙어버린 아버지를 보는 시각도 다소 동정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은 모든 것과의 결별을 다짐하는 순간에 폴의 감정이 아버지에게 대한 이해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어서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모자는 누구랄 것 없이 병세에 관한 한 서로를 속이고 있다. 어머니의 병세가 그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것을 두고 은근히 내비치고 있는 Annie의 이런 말—.... “She’s been having these pains for months at home, and nobody looking after her.”.....(“If I’d have been at home,” said Annie, “I should have seen for myself”.) (괄호는 필자)(451)은 아들과 어머니의 간의 허위와 가식의 단을 엿보게 해 주는 장면이다.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어머니도 아들도 잘 알고 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는 생에 집착하고 있으나 폴의 마음에는 어머니는 이미 지워져 가는 존재일 따름이다.—“I wish she’d die.”—(472) 어머니가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것이 폴의 거짓 없는 생각이다. 그래서 그는 심한 고통 속에 떨리는 행동으로 우유에 물핀을 타고 있다. 자기의 “생명 이상으로 사랑했던 어머니”—he loved her more than his own life.—(476)가 아닌가. 그는 침실에서 그리고 있는 그림을 앞뒤로 오가며 바라본다; 어머니의 죽음을 지키는 참을 수 없는 기다림 속에 터질 듯한 슬픔을 애써 달래 보려는 행동이랄까. 어머니는 고통스럽고 추한 모습으로 긴 파장을 그리듯 길고 거칠게 불규칙한 숨소리를 내 쉬면서 아들과 딸 앞에 누워 있다. 그것은 마치 기존의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으려는 힘과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힘의 대립을 바라보는 긴장된 분위기를 연상케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The Release(Ch.14)가 내포하고 있는 많은 의미 가운데서도 어머니가 영향을 준 감정의 속박에서 정신적으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폴의 숨은 의지를 말해준다. 그의 의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는 표현들이 있다:

“I s’ll leave Nottingham and go abroad- soon”(428)—머지 않아 노팅햄을 떠나 이국으로 갈 것이요—에 이어 “I s’ll go abroad when my mother’s dead,”(473)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나는 외국으로 갈 것이요. 라는

폴의 다짐이 그것인데, 이런 그의 다짐은 조금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동시에 모렐을 향해 폴이 자기를 열어 가는 주목할 만한 모습도 보인다: 폭풍 속에 장례를 마친 후 처가 식구들 앞에서 아내에게 최선을 다했노라며 울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에게서 인간적인 고독을 읽으며, 비록 감상적인 그의 태도가 마음에 차오지 않지만 그래도 폴은 아버지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직·간접으로 그들의 '생의 행위'를 방해받아 왔다. 폴은 이성의 선택에 대한 자신의 심리적 기반을 놓쳤으며, 모렐은 오래 전에 가장의 권위로부터 패출된 상태에서 그의 상징이었던 찬란한 수성-vital qualities-을 잃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술집-tavern-에서 마음에 드는 친구와 노닥거리며 장시간을 보냄으로써 그의 부인으로부터 떨어져 갔다. 그러나 이제 겨우 사회에 던져진 폴의 방향은 아버지의 경우와는 그 패를 달리 하고 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없다-"She's dead"-(500)는 걸 안다. 그도 물론 술집을 찾아서 아가씨 barmaid 들과 노닥거리고 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와는 다르다. 그는 무엇인가를 항상 열심히 찾고 있다. 어머니의 주도에 밀려 용기를 펴 보지 못한 아버지와는 다르게 오늘의 현상을 자신이 능동적으로 열어 가려한다. 술집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강요된 선택의 목적지였으나 폴에게는 현상 탈출을 위한 경유지일 뿐이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에게서 찾을 수 있었던 활력-vital qualities-의 그 어떤 자질도 그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다. 그는 자생력을 잃고 있다. 어머니가 죽자 예술적인 창조력마저도 상실한 것인지 '그림도 그릴 수가 없다-He could not paint-(498)라고 할 정도로 그에게는 방향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버림받은 자-Derelict-의 장(Ch.15)은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에 의해 강요된 지배가 폴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 왔는지를 추리하기에 충분하다.

그는 드디어 그림 그리기를 중단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어머니에게만 편향되어 있었던 자신의 모든 노력의 고리를 단절하고자 한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생활이 아니다.'-Painting is not living-(500)라고 결론짓는다. 그림을 계속한다 함은 어머니의 노력을 계승하는 작업이므로 더 이상 어머니에게 연연할 수 없다는 생각인 것이다. 지금까지 자신이 최선을 이라고 생각하고 안주하려 했던 태도는 어머니에 의해서 형성된 심리적 체

계일 뿐으로 이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부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고쳐먹는다.

폴이 추구해 온 지금까지의 그의 철학은 무엇인가? 그가 자기 세계를 창조하는 사상적 기반을 본능의 행동을 통한 경험에 두지 않았던가?. 그의 세계는 경험에 의한 창조라는 것이 거의 전부이다시피 하다. 그런데 이런 그가 경험을 통해 얻었다는 신념은 어떤 것이었던가? 그것은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얻어진 논리가 아니라 비이성적인 기질의 충동을 옹호하는 신념이 아니던가? 그는 그 해답을 이성에서 구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폴이 말하는 논리는 보편적일 수 없었다; 자기에게 적합한 체계는 오직 자신만의 논리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Body-3.

폴, 그는 정신보다는 본능에 더 충실했다. 따라서 그가 만족하는 사색적 탐구의 구체적 체계는 추상적 사색의 논리에 의한 정신의 만족이 아니라 정신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믿는 자신의 본능을 따르려는 태도에 있었다.

실패한 그의 과거사를 보면 이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Suddenly she saw again his lack of religion, his restless instability.....He had no religion; it was all for the moment's attraction that he cared, nothing else, nothing deeper.(509)— 미리엄은 그가 신앙심이 결여되고, 초조해 하는 심리상의 불안과 순간적인 매력을 쫓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으며 더 이상은 아무 것도 없는 하찮은 존재로 폄하하게 이르고 있으며,

그러나 폴은 절대로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회피를 하면서 점점 움츠러들었다. 크레이러는 이런 그를 경멸했다. —But this other(=Paul) would never own to being beaten. He would shift round and round, prow, get smaller. She despised him.(494) —그가 패배를 인정할 줄 모르는 즉 그녀는 폴이 한마디로 비열한 사내란 것이다.

이런 두 여인에 대한 폴의 평가는 사뭇 다르다. 전자에게서는— "But -

you love me so much, you want to put me in your pocket. And I should die there smothered.”(506) —그녀가 자신을 몹시 사랑하고는 있으나 호주머니 속에 자신을 넣어두고는 질식시키고 말 여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후자의 여인에게서는— She wanted him, but not to understand him....She could not cope with him. It made him ashamed.(495) —그녀가 자신을 욕구하고는 있으나, 이해하려 하지 않는 점이 불만스러우며, 그와 함께 고뇌를 같이할 만한 여인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것이다.

이렇듯 사면초가에 빠져있는 폴의 입장을 내레이터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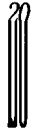
— „because nobody held him, feeling unsubstantial, shadowy, as if he did not count for much in this concrete world, he drew himself together smaller and smaller. He did not want to die; he would not give in. But he was not afraid of death. If nobody would help, he would go on alone.(495)—

즉, 그는 지금 ‘아무도 그를 부축해 주는 이가 없을 뿐더러, 자신이 마치 실체가 없는 그림자인 것만 같아, 이 구체적인 세상에서 별로 존재 가치가 없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폴 자신은 ‘자꾸만 작게 오그라들고는 있으나, 죽고 싶지는 않으며 행복할 생각도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폴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현상 탈출을 위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는 혼자 가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라고 말해 줌으로써 나레이터가 폴의 진로를 열어주려 하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그는 세상을 어머니와 함께 보아왔다. 그러나 어머니가 가고 없자 세상을 보는 눈에 간격이 생긴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절박한 문제는 지금 자신이 죽음에 끌려들고 있으며, 어머니의 뒤를 좇아 점점 죽음에 빠져들고 있다는 두려움이다.—as if he were drawn towards death.....The lesser things he began to let go from him, for fear of this big thing, the lapse towards death, following in the wake of his beloved. (495)—

그는 이 현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폴은 ‘어떤 자발적인 독창력을 가진 자



의 도움'을 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절실한데, 그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때 풀이 직면하고 있는 방황의 상황이 아름다운 산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Always alone, his soul oscillated, first on the side of death, then on the side of life, doggedly. The real agony was that he had nowhere to go, nothing to do, nothing to say, and was nothing himself..... Something separated him. Everything went on below those lamps, shut away from him. He could not get them.....Where could he go? There was nowhere for him. (501)—

즉, 그는 영혼에 자기를 싣는다: 그는 처음엔 죽는 쪽으로, 나중엔 사는 쪽으로 자신의 영혼을 싣고서 흔들여 본다. 그는 그의 영혼이 갈 곳이 없고, 할 일도, 할말도 없는, 그래서 자신은 결국 '무' 라는 인식에 고민한다. 나는 지금 무얼 하고 있나?—what am I doing?—499어디를 가나 불안한 그는 pub.에서 술을 마셔 보아도 조여오는 긴장을 어쩔 수 없다. 그는 지금 도시의 밝음이 있는 곳과, 어머니가 가신 어둠의 고요가 있는 곳, 그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의 정신적인 대화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의 기대를 이끌어 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미리엄과의 정사가 끝났을 때 그의 목표는 그가 위대한 실체(=great being)와 한 덩어리가 되어 암흑 속에 녹아들어서는, 암흑을 지배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도 그는 자신을 말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실체란 여전히 캄캄한 밤의 어둠으로 그가 이해 할 수 있고 진실이라고 믿는 것 또한 밤의 암흑이라는 것이다. 이 밤의 암흑 속에서만이 풀은 자아의 멸실을 통하여 자아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 캄캄한 정적속에 어머니도 있다. 그래서 풀은 그의 영혼이 지금 어머니와 여전히 함께 있으나, 그러나 어머니와는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 있을 뿐이라는 생각을 한다. 풀은 지금 울타리에 기대고 있으며, 나무 빗장 위에 놓인 자신의 손, 자신의 가슴과 육체가 —they seemed something. 510— '무'가 아님을 의식하는 것이다.

그는 스스로 “자신은 핵까지 공허한 무한소의 존재이나 그래도 '무'는 아

니다.” -„and himself, infinitesimal, at the core a nothingness, and yet not nothing.-510라고 말함으로써 그는 살아 있는 육체를 가진 거대한 암흑 속의 반딧불로 결코 사라져 버릴 수 없는 존재라고 믿는다. 폴은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빌어 어머니의 현재를 말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깊이 철학한다. 그의 세계는 시간이란 없고 오직 공간만이 존재한다. 그의 세계, 그 무한한 공간에서는 그는 이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서 나와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있는가?-Where was he? 510-라는 물음에 스스로 답하고자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코자 하는 것이다.

III. Conclusion

독자는 폴이 어떤 인물인지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격에 합당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이 소설의 저자에 의해서 그의 최후는 규정되어 있었다. 사실 소설가는 이 주인공이 자신이 규정했던 대로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바로 저자에 의해서 주인공의 행동이 의도적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어느 독자가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뒤흔들어 놓은 주인공의 돌출된 행동에 대하여 어떤 개연성을 인정하려 들겠는가? The ending을 처리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주인공이 행동을 취함에 있어 저자가 그의 행동에 대해 적절한 기교를 보태주지 않은 채 독자가 그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끌어내 주기를 바라는 태도만으로는 완고한 선입견을 가진 독자를 납득시키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그렇게 쓴 것이다. 그렇다면 폴이 제시했던 의견이나 욕망의 불가피성의 여부는 역시 폴을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의 내부에서 발견해야 할 것이다.

폴이 미리엄과 크레어러와의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은 자립에의 그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아도 좋을 듯 싶다. 폴이 마냥 그들에게 연연하며 방황의 늪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자신의 생명을 거부하는 태도라고 판단하는 성숙에 이미 이르러고 있었다고 말할 수 없을까? 그의 vitality는 손상을 입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자아와 함께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될 소중한

가치가 아닌가? 폴은 자기 발전을 위한 전형적인 기반을 잃지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황금빛 인광-gold phosphorescence-이 반짝이는 도화로의 방향선회는 폴이 로렌스가 말하는 주제에 역행한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열어가려는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하겠다. G.Salgado^⑧는 이 글의 대미를 원래 작가가 의도한 플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썼다. 그리고 폴의 선택에 대한 의미있는 관점을 내 놓았다. 즉, ‘그가 생존의 의미와 목적을 준 한 관계로부터 돌아서려 할 진데, 그가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근원을 갖고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된다’ 고 전제했다. 폴의 돌출행위로 비친 대미의 도시는 그가 지향하고자 하고 자신이 지키고 향유코자하는 또 하나의 세계이며, 그것은 또한 로렌스가 폴의 탄생과 함께 그에게 불어 넣어준 자유분방함과 결코 상실할 수 없다는 생명력에 대한 강한 다짐이며 대미는 이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펴 보인 것이라 하겠다.

references

1. D. H. Lawrence : Sons and Lovers, Edward Arnold, p.60, 1982. by G. Salgado
2. Deed of Life. The novels and tales of D. H. Lawrence, pp15-31, Princeton Univ. Press 1966. by Julian Moynaham
3. The Collected Letter of D. H. Lawrence Vol. I , P.160, 1962. Heinemann, London, ed. by H. T Moore
4. (ref)
 - 1) The Achievement of D. H. Lawrence, pp.131-43 Oklahoma Univ. Press, 1953. ed. by F.J Hoffman and H.T Moore
 - 2) D. H. Lawrence : Sons and Lovers, pp. 69-229, The Macmillan Press. 1979. ed by Gamini salgado.
 - 3) The English Novel: Form and Function pp. 245-262, Harper and Row, Inc, 1961. by Dorothy Van Ghent
 - 4) Dark Sun: a study of D. H. Lawrence, pp. 35-53, Duckworth 1975.

by Graham Hough.

- 5) Artist and Rebel: A study of D. H. Lawrence's Fiction. pp. 54-64, 1965. New Mexico Univ. Press. by E. W. Tedlock, Jr.
 5. Ibid, 1. P.49
 6. Ibid, 5. P.50
 7. Ibid, 5. P.50
 8. Text의 Page : S/L Penguin Book 1981
- * 본문중 L's : Lawrence's, S/L : Sons and Lovers 의 약어임.



